

“어민들 희생 예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3개 사회단체 주관 복합화력발전소 제안설명회 열려 ... 참석자들 찬반양론

지난 11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고성군변 영화와 이장단협의회 및 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가 주관한 복합화력발전소 제안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월 고성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들만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 이후 군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내용이라도 알자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홍콩에 본점을 둔 다국적 전력기업인 메이야 파워 컴퍼니(MPC, Meiya Power Company)의 사업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질문 답변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분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특히 MPC 관계자들이 발전소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MPC “7초6천억원 투입= 이날 설명회에서 MPC는 고성지역 해안가 1,652,900㎡(50만평)의 부지에 7초6천억원을 들여 유연탄 및 천연가스(LNG)를 사용연료로 하는 설비용량 5천 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비용량 5천MW는 전남 순천의 울촌 복합화력발전소 577MW, 충남 서산의 대산 복



지난 11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 사회단체가 주관한 복합화력발전소 제안설명회가 열렸다.

“예정부지도 밝히지 않고 결정하라니...”

합화력발전소 507MW 등 MPC가 운영하는 국내 2개 발전소에 비해 무려 10배나 큰 규모다.

MPC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경우 공사기간 동안 약 800명, 완공 후 약 5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연평균 19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생긴다고 했다.

또 전체 예산 가운데 자기자본은 2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3조7천억원, 국내 은행을 통해 1조6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밀폐형 컴베이어 설치와 저탄장 옥내형 설치, 냉각수 취수지점과 배수지점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온수 유출로 인한 수온상승 최소화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MPC는 고성군이 조속하게 유

치사를 결정해 5월 중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10월까지 주민 동서 제출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 찬반양론= MPC의 설명에 이어 진행된 질문 답변시간에 김진 군의원은 “동해화력과 동부화력의 경우 시멘트를 만들고 있는데도 엄청난 양의 회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많은 양의 회가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MPC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연탄은 밀가루처럼 뽕아서 운반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며, 집진효율이 99.6%여서 분진이 거의 날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함형완 군의원은 “화동과 보령 두 곳의 화력발전소 견학을 다녀

온 결과 시행초기에는 90%가 찬성했으나 현재는 90%가 반대하고 있었다”며 “인구가 과연 늘어났는지를 살펴봐도 거의 도움이 없고,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함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은 어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예정부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구 원전부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화진포 리솜리조트 국제관광휴양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고성군이 최적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위치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차례 물었으나, MPC측이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MPC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회사에서 생각하는 부지가 어디

인지 왜 안 알려주느냐”며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한데 위치를 왜 안 가르쳐 주느냐”고 질문하자, “이 모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찬성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위치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거진중합고등학교 김영국 교장은 “만일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거진 학생들이 평생직장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시설이라도 들어와야 고성이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부 방송국에서 현장 취재를 왔으나 MPC측이 촬영을 못하도록 하자, 방송의 특성상 화면이 없으면 보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취재를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이덕용 이장단협의회회장은 “오늘로 설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보완해서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실과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대학생 수상안전요원 60명 모집

속초해경 이달말까지, 고성 20명 ... 경찰 수상인명구조 요원은 훈련 돌입

속초해양경찰서 올 여름 동안 안 북부지역 해변(해수욕장)에 배치될 안전관리요원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7일간 양양문화회관 수영장에서 집중훈련에 들어갔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속초해경과 출장소, 경비함정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수영실력이 우수한 30명을 대상으로 구조영법, 인명구조, 응급처치법 등 60

시간 집중훈련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 대한적십자사의 자격검정평가를 통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 올여름 해변 개장과 함께 현장에 배치된다.

속초해경은 또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속초 40명, 고성 20명 등 총 60명의 대학생 안전요원 희망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9일부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생 안전요원은 속초시와 고성군에서 예산을 세워 채용계약을 하고, 모집과 배치 등 인력 운영은 경찰이 맡게 된다.

속초해경은 이와 별도로 올 여름 해변 개장 기간 동안 설악권 3개 시군으로부터 각 1대씩 모두 3대의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를 지원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사망 사고 Zero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군장병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보건의 건강관리팀은 22사단 군장병 4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군장병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측정, 건강상담 등을 통해 군장병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근 기자